

본질 IX.

신앙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1. 본질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교제의 삶을 말한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다.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상호소통'이다. 마음과 마음의 소통을 말한다.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인간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존재라면 기계와 다를 것이 없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이다.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중하셨다. 그 특권이 하나님과 친밀감이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존재안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친밀감이다. 욕망에 근거한 조건이 만나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다.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에 더 중심을 둔 관계이다. 그래서 친밀감 안에는 존중, 용납, 섬김 등의 키워드가 중심이 된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중점을 두고, 나의 힘(에너지) 흐르게 하는 관계이다. 내 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다.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흐름'이다.

2. 죄 - 단절 - 정체

인간안에 죄가 들어왔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파괴하기로 선택했다. 그 파괴의 대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 그 상태가 바로 '단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 (은혜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아는 것, 즉 창조주를 아는 것) 인간이 만든 단절의 벽은 모든 것을 차단시켰다. 영적존재가 육적존재가 되었다. 죄의 속성은 간단하다. 탕자처럼 자신의 주도권을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기위한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더 이상 하늘로부터 어떤 공급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복을 흘러 보내는 존재에서 '쌓는 존재(소유)'가 되었다. 그 왕국의 예가 바벨탑이다.

[창세기 11:4]

그들은 또 '자,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외쳤다.

영에서 육이 된 인간의 습성이 변했다. 흘러보내는 존재에서 쌓는 존재가 되었다. 바벨탑의 특성은 무엇인가? 높이 쌓을수록 중요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 흘러보내지 않는다. 쌓아서 중앙집권화 시킨다. 그리고 쌓아진 권력을 송배하게 한다. 힘을 쌓기 시작했다. 권력을 쌓기 시작했다.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재산을 쌓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쌓는 것은 좋은데, 흘러보내는 출구를 만들지 않았다.

3. 압박과 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쌓은 것을 지탱하고 버티기 위한 힘이 요구되었다. 쌓은만큼, 커진만큼, 그것을 관리할 멘탈 또한 변화되어야 했다. 쌓은 것이 허물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지탱하고 버티는 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인간이 쌓아올린 권력, 재산, 명예가 인간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제도를 만들어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간은, 사람을 부려서라도 자신에게 쌓아올린 힘을 버티게 했다. 힘이 권력화 되었다. 그것을 '기득권'이라 부른다. 기득권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힘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다. 기득권자들에게 소통은 없다. 모든 대상을 지배의 대상 아니면, 적으로 간주한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이다. 모세의 출애굽을 방해한 바로왕의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의 힘을 지탱하고 있던 노예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힘의 누수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그 힘이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 또한 마찬가지이며, 신약의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이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4. 스트레스, 죄의 속성

이런 바벨탑의 속성이 바로 죄의 속성이다. 인간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스트레스는 '짐'이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스트레스가 된다. 죄는 인간의 어깨위에 짐을 얹어 놓는다. 죄는 세상의 속성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세상의 속성은 하나님과 반대이다. 육은 영과 반대이다. 영은 흘러가는 것이고, (인간에게 복을 명하사 땅에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했다. 그 흘러감이 땅에 대한 통치이다.) 육은 쌓아서 정체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어깨 위에 쌓아올린 힘이 완전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기에, 언제나 그 힘은 '억압'이 된다. 억압이 되었다는 것은 내 어깨 위에 올려진 짐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짐에 묶여져 치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결국 해결이 없다.

5. 해결 - 무력화 시키는 일

인간의 힘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은 무엇인가? '흩어냄'이다.

[창세기 11:8]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 버리시므로 그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하였다.

하나님의 해결이 놀랍지 않은가? 흩어 버리시므로 그들의 성 쌓던 일을 중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어 버리신 이유는 하나이다.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자유를 준 것이다. 끝도 기약도 없는 탑 쌓기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우리 안에 쌓아 올려진 무거운 죄의 무게에 대한 해결은 하나이다. 죄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짐이 없는 상태, 즉 무력화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영향력과 힘을 쓸수 없는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2: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NIV)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세상의 힘과 권세들을 '무력화'(disarm)-무장해제, powerless'의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6. 은혜의 자리, 흐르는 자리, 긍휼함을 입는 자리

세상의 힘으로부터 무력화 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흐를 수 있는 자리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의 것을 소유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재능도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쌓아두지 않는다. 언제나 흘러 보낸다. 흐르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하늘의 능력이 마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자신 안에 쌓아두지 않으셨다. 언제나 그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으로 가셨다. 가난한 자에게 가셨고 병자에게 가셨다. 억울한 자, 죄인에게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흘러 보내셨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은 '무력화'의 힘을 아는 사람이다. 바벨탑의 깨어짐과 흠어짐을 경험한 사람이다. '쌓아올림'이 얼마나 나를 옥죄고 억압하는 일인지 아는 사람이다.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유를 과감하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삭개오는, 자신위에 쌓여진 짐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은혜로 알았다.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less(무력화) 할 수 있도록 하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공활함'을 입는 자리이다. 하나님의 공활함이 부어진 자리에 기적이 나타난다. 내 속사람이 세상의 힘이 무력화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공활은 부어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난다.

신앙은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흐르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곳에 자유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흐르게 하라. 그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존재이다.